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혜*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미국 Shasta College는 위치는 시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시내로 나갈 때는 조금 불편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은 쾌적한 편이었으며 건물마다 에어컨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시원했다. 그리고 캠퍼스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다. 대학의 분위기는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직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며 친절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Hospitality Class	처음에 되게 기대를 하고 갔던 수업이었는데 기대 이하였다.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우리의 발음이 이상한건지 교수님이 외국인 발음에 익숙하지 않으신건지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던 한국인 학생들이 말하면 한 번에 깔끔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 진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교수님도 답답해하시고 학생들도 답답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업내용은 1주에는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과 호텔에 관해서 배우게 되어서 좋았는데 2주차가 넘어가고 식음료 파트에서 메뉴 부분을 배우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수업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관광경영과 학생들이 아닌 타과 학생들은 이 수업에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Computer Class	컴퓨터 수업은 첫날에는 한국이나 지역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어주시고 수업분위기도 좋았다. 그리고 엑셀을 배웠는데 엑셀도 처음 배우는 것이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wordpres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던지 교수님이 우리를 잘 격려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좋은 수업이었다.

필드트립	<p>매주 다른 장소로 필드 트립을 갔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Redding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형식이었다. Redding의 관광지의 특성상 자연경관에 관한 곳을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느낌의 관광지라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 준비물은 우리가 따로 준비해 간 것은 위스키 타운에 수영하러 갔을 때 수영복과 여분의 옷이랑 올드 샵스타에서 점심을 먹을 때 사비? 정도 였다.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국립공원에서 먹은 점심준비물, 동굴에 갈 때 필요한 손전등 등등)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샌프란시스코 필드트립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교통정체도 있고 많은 관광지, 쇼핑센터가 몰려있다. 이런 곳을 만나질 만에 둘러보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하루가 아닌 1박2일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고온건조'이다. 해가 엄청 길고 (4시 반에 해가 뜨고 저녁 9시에 해가 진다.) 기온이 높지만 습하지 않아 불쾌지수가 높지는 않다. 다만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 겉옷을 준비 하는 게 좋다.</p>
안전	<p>안전은 완벽하다. 기숙사에는 매일 밤마다 가드가 순찰을 돌고 학교 내에는 24시간 가드가 순찰을 한다. 그리고 건물마다 카드키가 달려있어서 외부인은 들어 올수 없게 되어있다. 그 부분이 안전하다고 느낀 데에 제일 크게 기여한 것 같다.</p>
숙소	<p>기숙사는 2인 1실로 쾌적하고 편안했다. 에어컨과 와이파이도 잘 되어있어 편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매주 화장실 청소도 해주셔서 좋았다.</p>
식사	<p>학교식당 (0) 외부식당 () 기타 ()</p> <p>학교 식당은 1,2주 다 좋았는데 3주에 정말 실망스러웠다. 1,2주에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짜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3주에는 감자튀김만 나오며 나초(과자)만 나오는 등 도저히 식사로 할 수 없는 음식이 나와서 3주차에는 거의 밖에서(시내) 식사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인 목요일에는 디저트가 모자라다며 아예 받지 못했고 나가라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대우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p>

교통	<p>학교에서 시내로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버스 시간이 1시간에 1대라서 엄청 불편했다. 그리고 수업이 17시에 끝나는데 시내에서 학교로 오는 마지막 차가 18시에 막차라 평일에는 거의 택시를 타거나 교수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셨다. 버스 회사도 가끔 배차가 없어서 버리거나 종점이 아닌데 손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배차를 없애고 회사 벤을 기다리라는 통보 후에 쇼핑몰 앞에서 20분이나 기다린 적도 있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개인 용돈	1000000	국내에서 환전
합계	2577050	

5. 출국 전 준비사항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외항사중에 수화물이 2개인 곳을 꼭 탔으면 좋겠다. 미국은 쇼핑할게 정말 많았기 때문에 수화물이 여유가 있는 항공을 선택 하는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레딩은 엄청 햇빛이 따갑고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이다. 또 유심을 사서 가는 것도 좋다. 기숙사가 와이파이가 되긴 하는데 와이파이로 보이스톡, 멜론스트리밍, 페이스북 전화는 잘 안돼서 데이터를 많이 썼다. 그리고 밖에서 현지 전화를(ex.택시) 쓸 일도 조금 있어서 유심을 해 가는 것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이번 여름 프로그램을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었고, 가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게 첫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였고 설레는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대학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처럼 shasta college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골, 자연 이런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hasta college는 제가 미국에 와 있다는 분위기와 기분 때문 인지 모르지만 정말 심적으로 안정감을 받고 생활 했던 곳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생각했던 것 보다 알아듣기 수월해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한 번에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공부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r. Gordon 선생님은 정말 저희에게 친절하시고 신사적이시고 외국인인 저희의 말,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은 발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히 천천히 들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게 여러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생각을 물어봐 주실 때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느낌, 여러 사람들의 생각, 새로운 곳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hasta College 기숙사 앞 잔디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올드 샤스타 총 쏘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



위스키 타운



버니 폭포